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양돈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본고는 지난 5월 30일 본회 후원, 한국농어민신문사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구제역 극복과 한국 축산업 생존전략 워크숍」에서 유재일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 편집자 주

1.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양돈산업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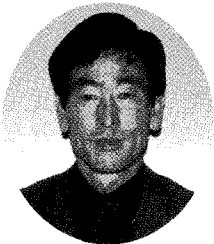
구제역 파동 이후 변화한 양돈산업 관련 환경변화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대일 돈육수출의 중단
- 갑작스럽게 생산과잉 산업으로 변화
- 보관 돈육의 증가
- 수입육의 시장확장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
- 관련산업의 불황
- 발생초기 국산돈육의 기피 현상
- 돈육가격 하락요인의 증가
- 구제역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데 따른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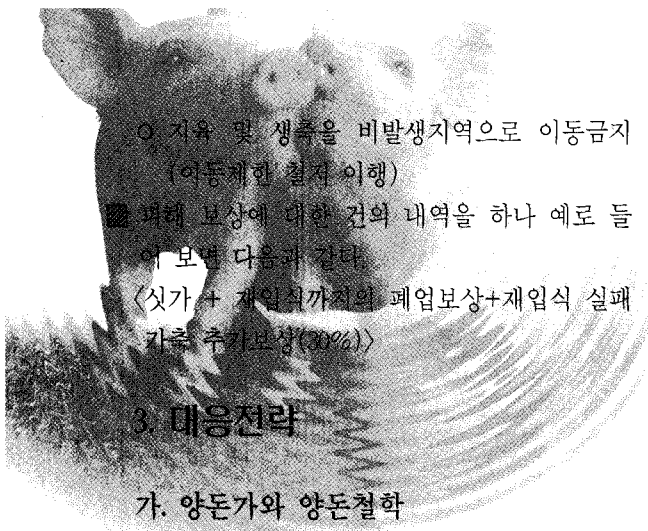
2. 구제역 파동에서 양축농가들의 불만(요구)사항

이번 구제역파동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농가들의 불만사항을 집약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구제역 발생 1개월간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축협중앙회)

- 충분한 피해보상
- 예방접촉 가축에 대한 명확한 처리대책 제시
- 이동제한 구역내 출하적체 물량 조기 해소대책(홍성)



유 재 일
한국양돈컨설팅그룹,
본지 편집위원



○ 지류 및 생축을 비발생지역으로 이동금지
(이동제한 철적 이행)

○ 미래 보상에 대한 건의 내역을 하나 예로 들
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식가 + 재입식까지의 폐업보상+재입식 실패
각각 주가보상(30%)〉

3. 대응전략

가. 양돈가와 양돈철학

큰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철칙을 외면하면 해
결책은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철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흔하면 싸지고, 넘침
은 모자람이나 다름없이
문제가 되고, 내 욕심만
쫓으면 남이 손해를 보
아야 하고, 강제로 먹
인다고 먹어주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철든 사
람이면 다 아는 평범
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이 곧 변할 수 없는 철칙
이고 진리이다.

철칙을 거슬리지 않는 철학적
행동양식은 모두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기
본이다.

각자 나의 양돈철학은.....? 무엇인가! 다 같
이 한번 되새겨 보고, 주제의 논의에 임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급변한 상황에서 노출된 문제 하나 하나를 우
선 급한 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은 거듭하여 문제
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상황의 재
발을 막기 위하여서는 근원적 치유를 하는 거시
적 접근을 하여야 함을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시간이나 상황적으로 부득이 할 때는 불가피 하
게 급한 불부터 끄고 보는 미시적 방법으로서의 접

근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파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시
점은 이미 거시적 차원의 미래 지향적 처방을 찾
는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 때인 것으로 생각한다.

거시적 처방을 찾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나
라 양돈산업의 미래상을 다시 그려보아야 할 것
이다.

나무를 그릴 때 그림은 먼저 주근(主根)과 주
간(主幹)을 그리고 큰 가지와 큰 뿌리 작은 가지
와 잔뿌리 그리고 잎을 그리는 순서로 완성해 가
는 것이 그림의 순서일 것이다. 미래양돈 산업이
란 그림을 완성되는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 양돈산업 이라는 주
제의 그림에 가장 큰 줄기
는 우리 양돈산업이 내
국인에게 우리 돼지고
기를 얼마나(비율적
또는 양적) 먹을 수
있게(선택하게)하는
산업이나 일 것이다.

양돈산업에 대한 토
론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
은 아직까지도 생산자의 입장
에서의 문제만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구제역과 관련
한 문제의 접근에 앞서 우리들 모두는 양돈산업
이 무엇에 의해 가장 크게 지배받는가 부터 확실
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확실히 하
지 않고서 그린 그림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림
이 되고 말 것이다.

이후는 우리 양돈인은 누구나 소비자를 위하
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양돈인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육류의 선택이 양과 값이라는 원초적인 근거
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시대가 종료된 것은 아니
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차원이 높은 기준에

양돈산업에 대한 토론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생산자의 입장에서의 문제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구제역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에 앞서 우리들
모두는 양돈산업이 무엇에 의해
가장 크게 지배받는가 부터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의하여 선택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시대가 되리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현재적 욕구를 충족하고 미래적 욕구를 예리하게 분석하여 대비해야만 안정된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인간적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면 후일 크게 빛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응전략

앞에서 열거한 현재의 상황을 문제의 바탕에 깔린 성질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진다

- 1) 국가 가축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서 기인된 상황
- 2) 갑자기 닥친 공급과 소비의 균형 붕괴에서 비롯된 상황
- 3) 수입대비 능력의 미약에서 비롯된 상황

☑ 1)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도 이번 파동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많은 전문가가 그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여 지면이나 문서로 의견을 개진 하였음

로, 이제까지 개진된 의견과 자료를 기초로 더 많은 사례와 의견을 보태어 정리하면 경험하기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국민과 축산인에게 신뢰받는 방역체계와 수행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에게 방역행정이 공감을 받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주 바뀌지(예: 살처분 보상금)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의 경우 우리정부가 법정전염병 방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는가는 수매 또는 보상에 관한 지침 시달 사항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 절박우 수매지침

(축통51550-233(2000. 4. 8)

(축통51550-245(2000. 4.10)

(축통51550-345(2000. 5. 8)

◆ 이동제한구역내 돼지수매가격 조정

(축통 51550-336(2000. 5. 2)

◆ 이동제한구역내 종돈수매 단가조정

(축정 51530-323(2000. 5. 3)

◆ 이동제한구역내 돼지수매가격 재조정

(축통 51550-343(2000. 5. 6)

◆ 홍성 보호지역내 과체중 한우에 대한 가산

금 지급 지침 (축통 51550-346(2000. 5. 8)

그리고 정부는 가축방역사업이 전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임을 국민과 타 정부부처가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가 자국의 가축을 법정 전염병으로 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가축방역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데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우리의 문제와 나의 문제에 관한 관계와 비중을 어느 때 보다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구제역같은 전염병은 내

〈표 1〉 우리 나라와 양돈경쟁국간의 돼지고기 생산기술 비교

구 분	한 국	국외(덴마크, 미국)
◆ 생산·도축·가공·유통분야 (브랜드육 생산)	일부 생산 판매중 (생산자↔도축장관계 미비)	도축·가공장 중심으로 브랜드육 판매중(생산자↔소비자 연계)
◆ 생산·사양 분야 (규격돈 합격률)	60%	80%
◆ 품질분야 1)PSE(물빼지) 발생율 2)도축전후관리, 저장온도 및 미생물 관리와 제어	42% 냉동육 주, 일부 신선냉장육으로 생산 유통(도축 위생관리 미비)	5% 신선냉장육으로 유통 (도축위생관리 철 저, 총균수 103 CFU/gr이내)

*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기술 심포지엄('98)

집 대문만 관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부의 협력만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번에도 “나”라는 객체의 이해 관계에 치우친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서글프게 또는 당황하게 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돌출 되었다.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축산인은 나만 손해가 없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전염병은 특히 우리가 다 안전하여야 그 중에 하나인 나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보다 우리를 더 비중 높게 생각하는 자세가 비할 데 없이 소중한 것이 전염병에 관한 개인들의 자세이다.

“1)”의 문제는 「국가」 「관련단체와 업계」 「양축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풀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며 넓게는 전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지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방역체계의 정비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등 정부가 하여야 하는 분야부터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일 것이다.

발표자는 앞으로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법정전염병 대비 양축인 행동강령」의 제정을 제안코자 한다.

이번 파동의 경우 농가들이 병의 증상을 모르거나 이상증후가 있을 때 조속히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발생초기)

2) 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불균형은 산업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약과 병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다만 이번에 맞은 상황이 다른 점은 돌발상황이라는 점이다.

수급의 불균형은 소비량이 증감, 생산의 차질, 값의 등락, 우리나라와 같이 돼지고기를 도입하는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선택등 그 불균형의 요인이 많고 돌발적인 상황도 나타나므로 모자라고 남음이 없을 수는 없다.

이번 파동의 경우 현시점에서 본 재고물량의 증가(수출대기 물량, 발병지의 도축물량, 일시적 소비감소에 의한 재고증가)는 그 물량이 파악되고 누적 체화물량도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선 경험국인 대만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 돼지사육을 허가제로 하여야 한다.(생산조절)
 - 모든의 감축명령을 내려야 한다.(생산조절)
 - 폐업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비육돈 출하시 일정비율로 모든을 출하(도태)하여야 한다.(생산조절)
 - 농가 스스로 10% 모든 감축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생산조절)
 - 소비홍보를 하여 소비촉진을 하여야 한다.(수요증대)
 - 경영부실 농가의 사육포기를 기다린다(시장경제 논리)
- 등 많은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표 2〉 우리 나라와 덴마크의 돼지생산성 비교

구 분	한 국	덴 마 크
모돈회전율 : 년/회	2.08 ~ 2.27(2.17)	2.17 ~ 2.34(2.26)
산자수 : 두/년	22.0 ~ 24.3(23.0)	24.3 ~ 28.0(26.2)
이유자돈수 : 두/년	17.7 ~ 21.8(19.7)	20.8 ~ 25.3(23.1)
육성률 : %	80.0 ~ 89.7(85.7)	85.6 ~ 90.4(88.2)
포유일수 : 일	25 ~ 21(23.5)	31 ~ 28(29.5)
이유시체중 : kg	5.5 ~ 5.0(5.25)①	7.0 ~ 7.5(7.25)
출하 체중 : kg	108	105.5 ~ 101.9(103.5)②
출하일령 : 일	176 ~ 177(177)	162 ~ 190(176)
일당증체량 : g	610 ~ 616(613)	545 ~ 620(583)
사료요구율 : kg	3.3 ~ 3.2(3.25)	3.12 ~ 2.71(2.91)
비육돈생산비 : 원/생체kg	1,775~1,610(1,572)	1,366 ~ 1,186(1,274)③

* ()내 평균치, ① 추정치, ② 도체율 75% 적용 산출, ③ 1996년 생산비를 사료요구율에 근거 산출
 자료 : 1.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관실(1999.2),
 2. 1999년 사업년보(덴마크 양돈협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Pig Production)

양축가는 어느 의견에 손을 들어 줄 것인가? 두려움의 늪을 가장 빨리 빠져 나오는 길은 어느 길일 것인가?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보다 견실해지기 위하여서는 어느 길이 최선의 길일 것인가? 수입돈육과의 관계로 볼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양돈농가의 수용태세는 어떤 것인가?(정부입장)등 이해 관계가 복잡히 엉기어 있고 실행시 달성도와 효과도 예측키 어려운 문제이다.

이중 가장 희망적인 대안은 「농가 스스로 10%의 모돈을 감축」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전 농가가 우리라는 「대아적」 가치관을 존중할 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네가 먼저 손을 들면 내게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소아주의적」 심리가 내재하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다.

시장경제 논리는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저항을 받을 것이며 규제는 피하려는 심리가 발동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등 차원의 대안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소비축진도 소승적 차원(양돈만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대승적 차원(축산업)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홍보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란 미리 늘 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소비축진도 효과가 얼마나 될 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점 전 양돈인들이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모두가 하나되어(대승적 차원의 나) 해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발표자의 희망이고 소망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의 경고를 한다면 산란계 산업의 '99년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양돈산업도 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와 공급의 균형 차원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소비자의 국산돈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번뜩이는 지혜를 기대하여 본다.

▣ 3) 은 농가와 관련학계·업계, 연구·지도기관이 협력하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법석을 떨고 평화롭다고 느슨해져서도 안되는 성격의 것이다.

국제경쟁력은 농가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높이면 개선의 가능성이 확실한 분야이다.

양돈농가의 경영성과를 보면 하위농가와 상위농가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그것은 하위농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증거이다.

외국과의 생산기술 및 생산성 자료를 보아서도 기술수준의 향상은 아직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농가의 기술력 및 생산성향상 그리고 수익률을 향상시킨다면 낮은 가격으로도 적정한 수익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양돈**